

과학버블 경계해야 ...

Science Bubble

경제에서 버블(bubble, 거품)이 붕괴되면 상당한 고통이 초래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붐이 최근의 사례다. 끝도 없을 듯하던 벤처붐이 식기 시작하면서 그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일본도 그랬다. 지금 일본 경제는 10년 장기불황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가, 지가 등 자산가격 거품의 급격한 붕괴가 초래한 고통은 정말 오래 갔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IT로 인한 버블은 긴 조정기간을 필요로 했다. 그만큼 미국 경제도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경제에는 사이클(boom & bust)이 불가피하지만 그 폭이 너무 크면 고통이 심대하고 조정의 기간도 길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어디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학에도 버블이 형성되면 역시 나중에 고통이 그만큼 커질지 모른다. 그 동안 뭘 제대로 지원해 줬다고 과학 버블 운운하는가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황우석 교수의 세계적 연구 성과는 여러 가지로 국내 생명과학 및 공학계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사실 벤처붐이 식자 BT분야도 그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BT는 IT와 달리 회임기간이 긴 데다 '과연 우리가 해서 승산이 있을까' 하는 회의도 없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터져 나온 황우석 교수의 즐기세포 관련 연구 성과는 BT 분야에 한줄기 빛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BT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음은 물론이다. 요즘 증권가에 유행하는 말을 빌리자면 이른바 '황우석 효과'라 할 만 했다.

그 외에도 과학계 내·외부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과학계가 모처럼 활성화되면서 황 교수를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생긴 것은 참으로 보기 좋은 일이었다. 황우석 후원회도 생겼다. 과학계의 특징인을 후원하자고 해서 기업 등 각계에서 후원회를 결성한 것은 과거 같으면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종교계 등 윤리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쪽의 변화도 성과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종교계와 연구계 사이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물론 윤리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황우석 교수팀의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계기로 국내에서 황 교수에게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덩달아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니 이 역시 부수적 성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걱정스런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황 교수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너무 떠드는 것 아닌가 해서다. 과학기술중심사회, 혁신주도형 경제를 외치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황 교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유혹을 전혀 안 느낀다면 그게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연계하고픈 욕구를 느낄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글_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경영과학박사 ahs@hankyung.net

하지만 그러다 보면 황우석 교수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연구의 버블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황 교수가 하는 연구 자체의 버블이 아니다. 외부에서 그 연구에 몰타기를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과도한 기대 형성이 문제다.

황우석 교수 자신은 분명히 “연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했다. 당장 이번 연구 성과로 인해 각종 난치병 치유 등 장밋빛 세상이 금방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도 그는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버블이 과도하게 형성돼 나중에 버블이 터지면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버블을 조성한 정부인가, 정치인인가, 아니다. 버블 조성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황 교수와 그 연구팀만 이상한 사람들이 되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런 유사한 사례를 슬하하게 보아 왔다. ‘버블을 조성하는 사람 따로, 피해를 보는 사람 따로’ 라는 얘기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조용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를 내버려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사실 황우석 교수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과학계가 버블과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인지도 모른다.

이제는 국내 최초라는 말도 성에 안 차는 것이 우리 연구계인지 특하면 세계 처음 있는 연구 성과라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다. 과학자들은 언론에서 이를 부추긴다고 하지만 부추겨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최초 증후군’은 대개가 버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세계 과학저널에 우리 나라 연구논문이 많이 실린다고 우쭐대는 것도 그렇다. 논문이면 다 같은 논문일까. 또 논문 숫자라는 것이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얼마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 숫자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 역시 영락없이 버블을 예고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과학에는 포퓰리즘(Populism)이 없을까. 왜 없겠는가. 포퓰리즘은 실제로는 하향평준화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포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비극을 예고한다. 거품이 꺼져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면 모두가 피해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면 시장경제는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정부가 특정 분야를 육성하려 할 때도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학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자칫하면 심각한 거품으로 이어지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과학계에서 버블이 터지면 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고 오래 갈지도 모른다. 후학들에게 두고두고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연구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학계에 대한 지원은 좋지만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㉔